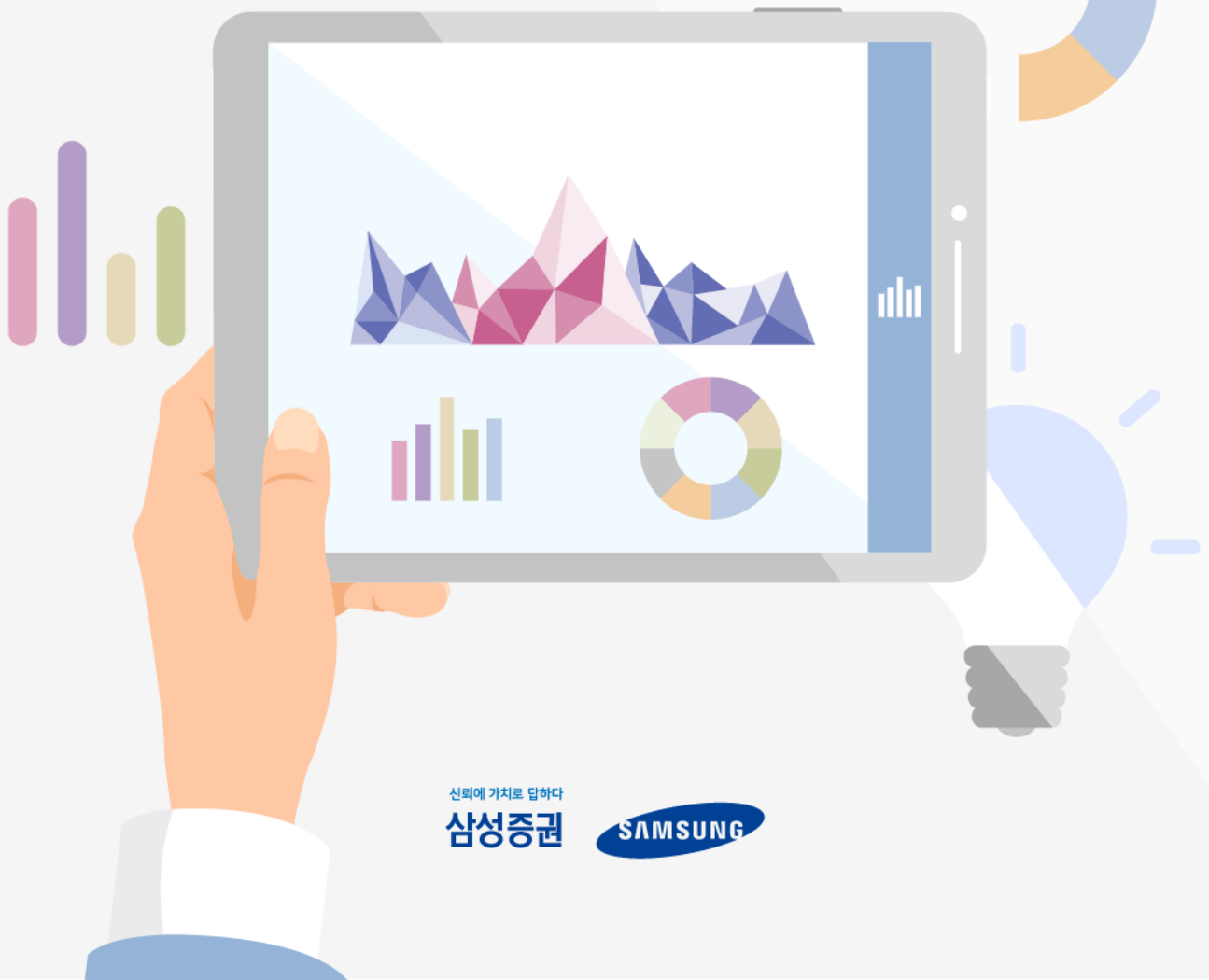


SAMSUNG DAILY

삼성데일리

투자전략센터 | 2018. 02. 01

- 2월 국내주식 투자전략
한국 증시의 Gap 메우기
- 리서치센터 Top 10 Picks
- Model Q
- 범중화 유니버스
- 미국 유니버스
- 일본 유니버스
- 베트남 유니버스
- 글로벌 ETF 유니버스
- 기업실적 발표일정
- 수급 빅매치
- Market Indicators
- 증시 캘린더



신뢰에 가치로 담하다
삼성증권



투자정보팀

Sunghyun73.park@samsung.com
02.2020.7041

2월 국내주식투자전략

한국 증시 Gap 메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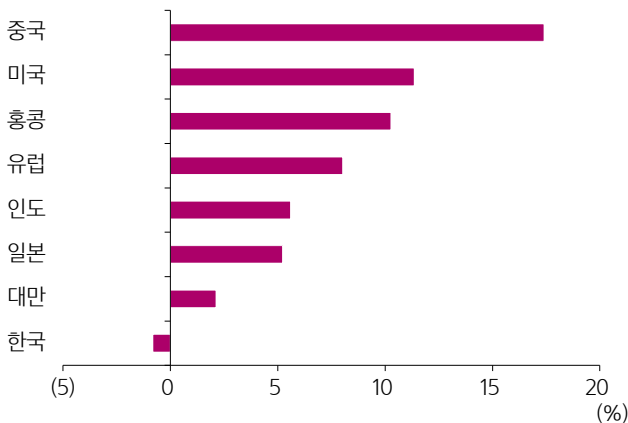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1월 중의 하나로 평가된 연초 글로벌 랠리에서 한국시장은 소외되었다. 그러나 이는 시가총액 비중이 큰 대형 IT주의 부진이었을 뿐, 장기적인 어닝 모멘텀과 주식 전반의 활력은 나쁘지 않았다.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증시의 가치 매력은 더욱 커졌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목을 재차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글로벌 증시가 연초 랠리 이후의 숨 고르기에 들어가더라도, 한국증시는 오히려 갭을 축소하며 상승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글로벌 수요 회복을 바탕으로 하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와 연동한 인플레이션 기대와 금리 상승에 힘입어 Cyclical/금융주가 이미 증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그간 부진했던 대형 IT주들도 기존의 가치 매력 위에 삼성전자의 액면분할 이슈가 더해져 활력을 회복할 것으로 본다. 이머징의 구매력 확대가 또 다른 축인 소비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한국증시의 안정감은 커지고 투자자 선택의 폭은 한층 넓어질 것이다.

'가치'의 한국

한국증시의 연말/연초 성과는 글로벌 주요국 중 가장 부진한 편이었다. 대형 IT주들의 어닝 모멘텀이 slow 해진 부분이 시장 전체의 어닝 모멘텀과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장기 관점에서 한국은 여전히 글로벌 수위의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그림 1, 2). 그 결과 한국증시의 절대적/상대적 가치 매력은 보다 커진 상황이다(그림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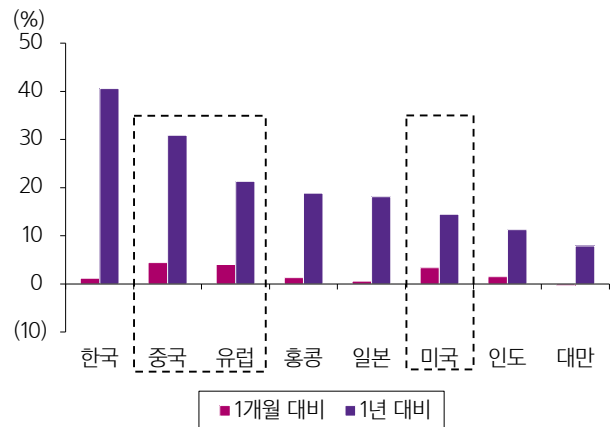
그림 1. 글로벌 주요 증시 단기 성과 비교



참고: '17.11월 이후 MSCI 국가지수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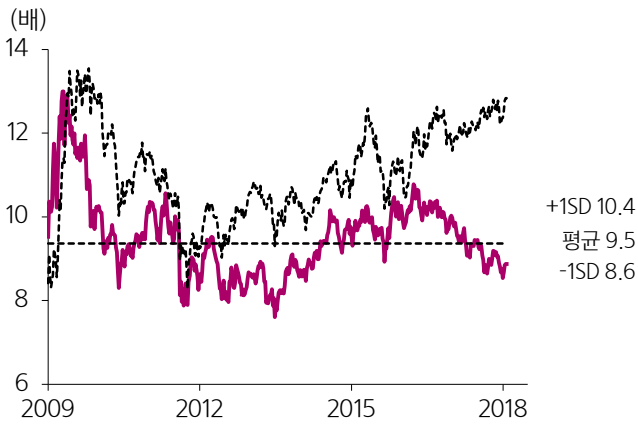
그림 2. 글로벌 주요 증시 어닝 모멘텀 비교



참고: 12개월 포워드 P/E 기간별 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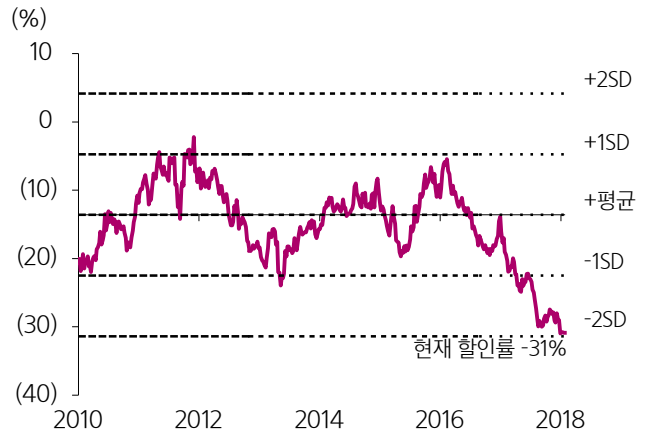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삼성증권

그림 3. KOSPI historical P/E 밴드



참고: 12개월 포워드 P/E 기준, 점선은 MSCI 이머징을 비교차원에서 표시
자료: WiseFn, 삼성증권

그림 4. 한국의 이머징 대비 Valuation 할인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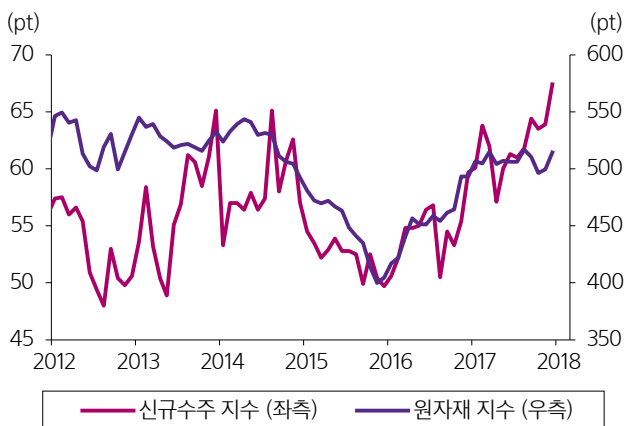


참고: 12개월 포워드 P/E 기준
자료: Dataguide, 삼성증권

글로벌 경기 및 수급 모멘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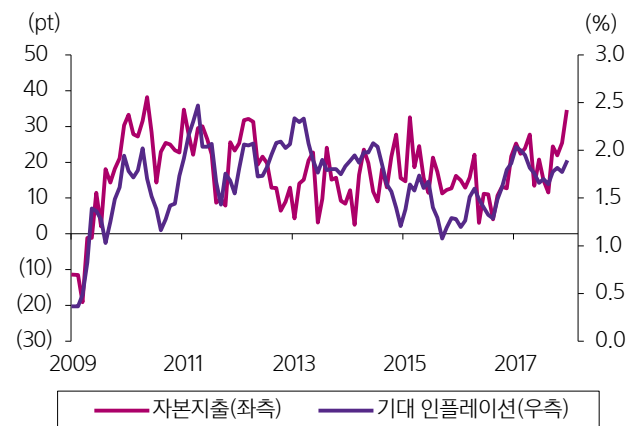
2월에도 글로벌 경기 모멘텀은 여전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작금의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과거와 달리 수요 확대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림 5). 향후 경기와 금리 추가 상승에 대비하여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이것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 기업 실적 모멘텀 강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어 있다(그림 6).

그림 5. 미국 신규수주와 원자재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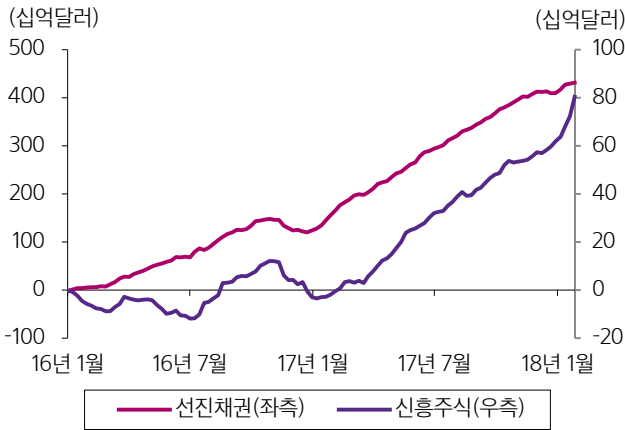
참고: 미국 ISM 신규주문 계절조정치와 Bloomberg 원자재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그림 6. 미국 자본지출과 기대 인플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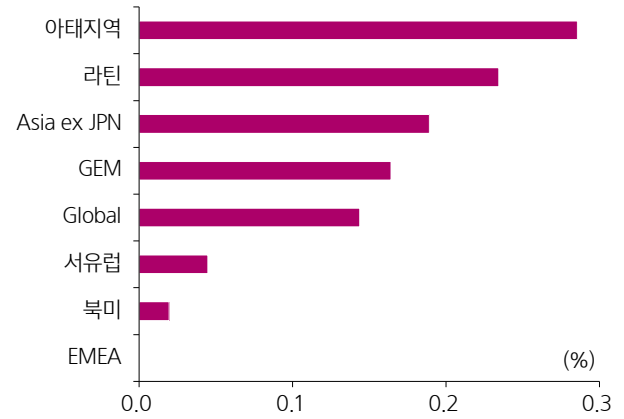
참고: 미국 6개월 선행 자본지출 계획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그림 7. 선진 채권 vs. 신흥 주식 누적 펀드 flow



자료: EPFR, 삼성증권

그림 8. 주요 지역 주식형 펀드 유입 강도 비교



참고: 유입 강도=순유입액/총자산. 최근 12주 평균값
자료: EPFR, 삼성증권

경기 회복과 금리 상승에 따라 글로벌 채권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세는 주춤해지는 반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세는 강화되고 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교역 확대의 수혜가 집중될 수 있는 아시아 신흥시장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이다(그림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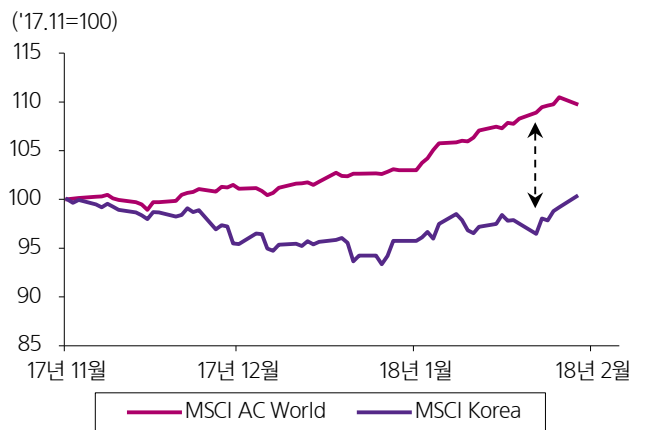
상기 흐름에 발맞춰 아시아 주요국의 외국인 수급이 연초 매수세로 전환되었는데, 그 중 한국증시로의 유입 규모가 가장 크다(그림 9). 상기 지적한 한국증시의 가치 매력을 글로벌 투자자들이 사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2월 한국은 연말/연초간에 벌어졌던 글로벌과의 갭을 축소하며 상승 추세를 견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0).

그림 9. 아시아 주요 증시 외국인 월간 순매수 추이 비교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그림 10. 한국의 글로벌과의 Gap 매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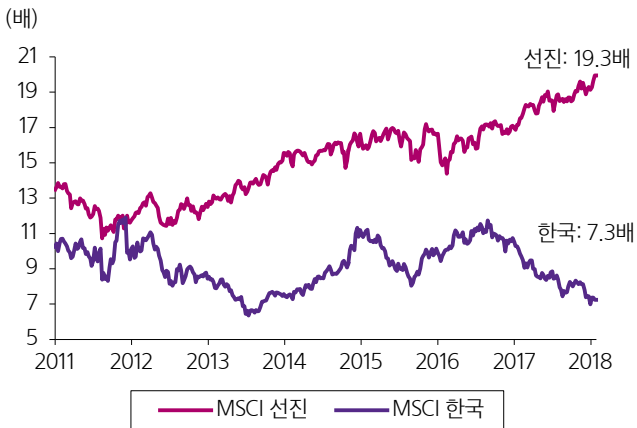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삼성증권

세 개의 발(足)로 우뚝 서다: IT, Cyclical/금융, 그리고 소비주

우리가 한국증시와 KOSPI에 대해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섹터 모멘텀의 확산 구도에도 있다. 금융/민감주의 선진으로 힘겹게 버티던 것에서, IT와 소비주가 가세하며 저변에서의 안정감이 더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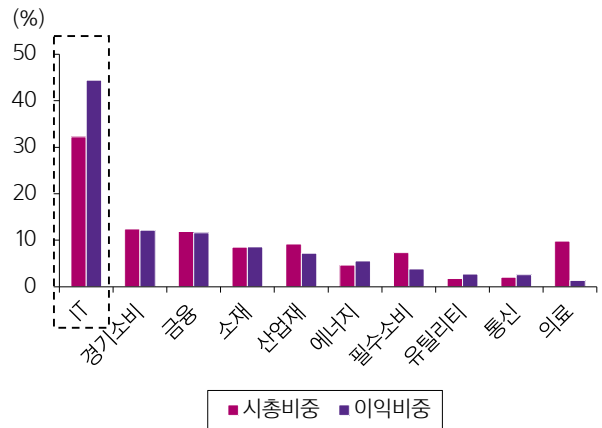
가치매력이 부각될 IT: 최근 주가 조정에 의해 한국 IT의 절대적/상대적 가치 매력은 더욱 커졌다(그림 11). 어닝 모멘텀이 slow 해졌다고는 하나 감익(減益) 사이클이 아닌 바에는, 이익의 규모 대비 지나치게 낮아진 비중이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고 본다(그림 12). 일정한 트리거만 주어지면 언제든 비중 확대가 재개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본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발표된 삼성전자의 액면분할 결정이 IT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림 11. 선진 vs. 한국 IT 12개월 포워드 P/E 추이 비교



자료: Thomson Reuters, 삼성증권

그림 12. 한국증시 섹터별 시가총액 vs. 순이익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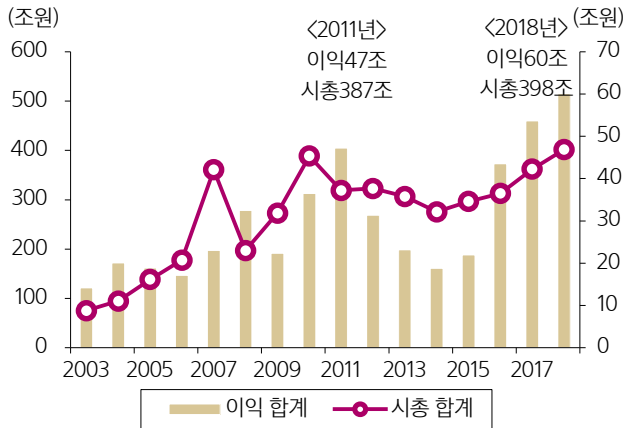


자료: Dataguide, 삼성증권

주도주로 자리매김한 Cyclical/금융: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금리 상승세는 금융주와 민감주에 분명 유리한 구도다. 실적은 이미 과거의 수준을 크게 넘어섰으나, 아직 주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금융주 역시 향후 경기 회복 및 금리 상승에 의한 ROE 개선 여지, 이를 반영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그림 13, 14).

앞으로가 기대되는 소비주: 원자재 가격 강세 및 투자 확대는 곧바로 이머징의 경기 회복과 통화 강세로 연결된다. 이들의 구매력이 공고해진다는 의미다. 중국 중심으로하는 이머징의 소비가 중요한 한국의 소비주에게 좋은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작년 사드로 인한 분쟁의 상처가 최근 관계 개선과 더불어 '기저효과'라는 선물로 돌아올 수 있음에 주목하자(그림 1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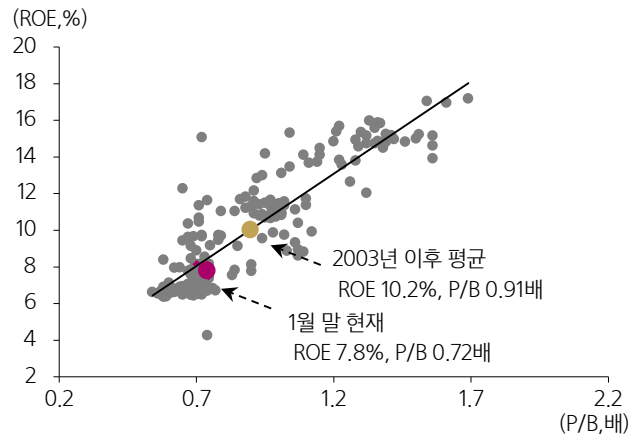
그림 13. Cyclical 연간 영업이익 vs. 시가총액 비교



참고: 에너지/소재/산업재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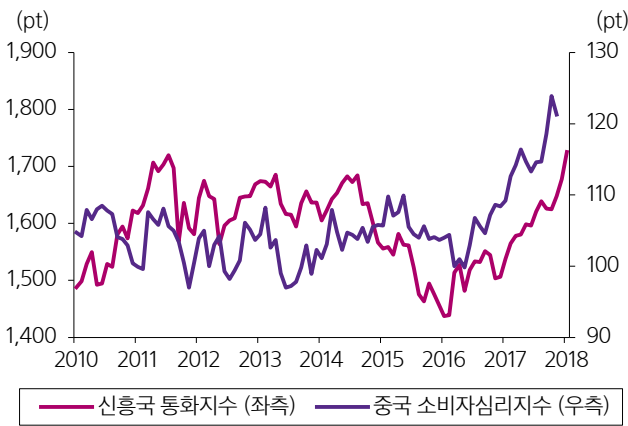
자료: WiseFn, 삼성증권

그림 14. 금융 월간 ROE/PBR 산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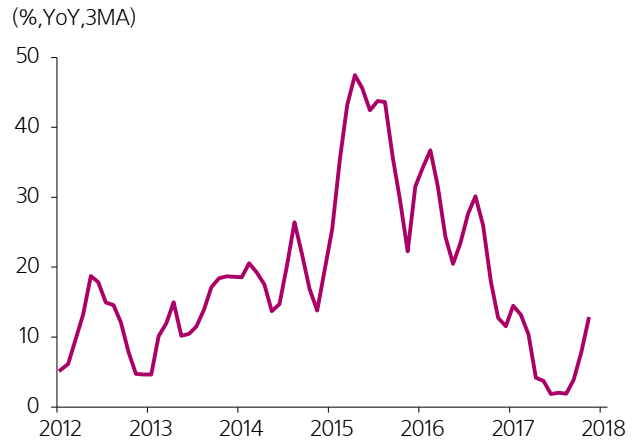
자료: WiseFn, 삼성증권

그림 15. 신흥국 통화지수와 중국 소비자심리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그림 16. 중국 국제 여행자수 증감을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2월 투자전략과 관심종목: 네 가지 테마, 그리고 네 가지 변화

1) 귀환(歸還)을 준비하는 IT

- ① 삼성전자 액면분할 효과: 가치 매력을 부각시킬 반등 Trigger
- ② 애플(Apple): 애플 부진의 반사효과 기대
- ③ 스마트폰 H/W 업그레이드: 싱글 카메라에서 듀얼로
- ④ 폴더블폰 시대 준비: 관련주 모멘텀 증대



2) 전기차의 시대

- ① 글로벌 정책공조: 친환경차에서 전기차로 집중
- ② 세그먼트의 확장: 최상위(모델S)에서 최하위(Bolt)까지 전 세그먼트로 라인업 확장
- ③ 배터리의 진보: 1회 충전당 400km 전후의 중장거리 전기차 시대 개막
- ④ Autonomous 시대 개막: 전기차 시대에 걸맞은 자율주행 기술 탑재

3) Cycle이 사라진 Cyclical

- ① 달러 약세와 글로벌 유동성: 경기회복+달러약세+풍부한 유동성으로 상품 가격 강세
- ② 에너지 가격 강세의 후광: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으로 산업재 동반 랠리
- ③ 숏티지(Shortage): 이상기후의 반복으로 인한 수급 차질이 가격 강세로 연결
- ④ 환경규제: 중국의 강력한 환경규제가 과잉 수급을 해소하며 가격 강세로 연결

4) Consumer의 재정의(再定義)

- ① 아시아 통화 강세: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의 구매력 증가
- ② 파이공의 등장: 차이나 수요를 보완할 새로운 소비층의 등장
- ③ 스포츠 Big 이벤트: 동계올림픽(평창)→월드컵(러시아)→아시안게임(인도네시아)
- ④ K-브랜드의 성장기 시즌 2: 중국을 넘어 글로벌로 확장

표 1. 관심종목 10선

구분	종목명	종가(원)	시가총액 (십억원)	영업이익(십억원)		증가율 (%)	ROE(%)	P/E(배)	P/B(배)	수익률(%)		
				2017(E)	2018(E)					2018(E)	1개월	3개월
IT	삼성전자	2,495,000	322,101	54,360	64,925	21.1	20.9	7.5	1.4	(2.1)	(9.4)	3.5
	삼성전기	106,500	7,955	309	607	96.3	8.9	20.5	1.6	6.5	2.4	13.7
전기차	LG화학	432,000	30,496	2,961	3,033	2.5	13.0	15.8	1.9	6.7	7.1	31.7
	현대모비스	247,500	24,093	2,343	2,604	27.8	8.7	8.8	0.7	(5.9)	(7.1)	0.6
	LG전자	102,500	16,774	2,576	3,017	22.2	12.7	9.9	1.2	(3.3)	12.6	52.8
Cyclicals	POSCO	380,500	33,175	4,706	5,101	10.4	7.2	10.2	0.7	14.4	16.9	14.6
	롯데케미칼	420,000	14,396	2,885	2,959	2.6	18.8	6.1	1.0	14.1	13.7	13.8
	현대건설기계	203,500	2,010	161	226	40.4	12.3	12.7	1.5	20.4	8.0	20.8
Consumer	아모레G	142,000	11,709	744	1,016	36.6	10.5	39.3	3.7	0.7	(1.1)	16.9
	호텔신라	93,000	3,650	78	158	116.4	13.8	38.6	4.4	9.5	18.8	43.1

참고: 2018년 1월 31일 종가기준
자료: Dataguide,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02.2020.7115

리서치센터 Top 10 picks

종목	주가(원)	목표주가(원)	시가총액(조원)	투자포인트
KB금융 (105560)	67,300	82,000	28.1	- 은행업종 내 금리 상승 시, 가장 큰 폭의 NIM 개선 기대 - 업종 내 최고 수준의 자본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대출 성장 전망
현대모비스 (012330)	247,500	300,000	24.1	- '20년까지 xEV부품 매출 매해 1조원 이상 성장 전망 - 독점납품 구조와 시스템 납품 경험은 Valuation 프리미엄 요인
*LG (003550)	89,100	-	15.4	- 주요 자회사 실적 개선에 따른 지분법 이익 확대 및 NAV 상승 전망 - 전장사업 수직계열화 구축에 따른 신성장동력 부각
한화케미칼 (009830)	35,200	45,000	5.8	- 중국 환경규제 지속에 따른 PVC 및 가성 소다의 강세 지속 - 태양광 부문의 과도한 우려 불식
현대건설 (000720)	42,900	51,000	4.8	- 양호한 신규수주를 통한 안정적인 매출 회복 전망 - '18년 국내 SOC 인프라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
신세계 (004170)	343,000	400,000	3.4	- 면세점 성장성으로 유통주 중 차별화 - 백화점 업계 내 차별화되는 성장 모멘텀
풀어비스 (263750)	251,200	300,000	3.0	- 검은사막 모바일 공개 및 사전예약 실시를 통한 출시 지연 리스크 해소 - '18년 2분기 콘솔 버전 출시로 모멘텀 지속
LS산전 (010120)	68,900	86,000	2.1	- 정부의 3020 계획안 발표에 따른 융합사업 부문 수주 기회 확대 전망 - '18년부터 시작되는 프로젝트(전력인프라, 일본 태양광 EPC사업 등) 기대
풍산 (103140)	50,300	58,000	1.4	- 글로벌 경기 회복에 기인한 구리 가격의 긍정적 흐름 기대 - 방산 수출 사업의 보수적 추정 하에서도 주가 상승 여력 존재
제주항공 (089590)	38,600	49,000	1.0	- 국내 1위 LCC로서 외형확대와 단위비용 절감이 가장 빠름 - 글로벌 peer 대비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참고: 목표주가는 당사 리서치센터 기준, * 당사 비커버리지 종목

※ 삼성 Top 10 picks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주간 단위로 제시하는 투자유망종목입니다. 당사는 고객의 투자위험관리를 위하여 고객님의 종목에 투자하실 경우 한 종목 보다는 포트폴리오 차원의 투자를 추천 드립니다. 개별 종목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하여 적어도 세 종목 이상 분산 투자를 하여 고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권고 드립니다.



투자정보팀

seungjin.shin@samsung.com
02 2020 7017
jm56.kim@samsung.com
02 2020 7030

Model Q

퀀트로 보는 투자 매력도

종목코드	종목명	종합 점수 (100 점)	영업이익(십억원)			P/E (배)	P/B (배)	수익률(%)	
			2017(E)	2018(E)	YOY(%)			1개월	3개월
267270	현대건설기계	88.2	161	226	40.4	12.7	1.5	20.4	8.0
000660	SK 하이닉스	85.1	13,563	17,485	27.4	3.9	1.1	(3.9)	(10.6)
066570	LG 전자	84.5	2,576	3,017	22.2	9.9	1.2	(3.3)	12.6
009830	한화케미칼	83.8	806	813	0.8	6.3	0.8	11.4	15.6
079160	CJ CGV	83.5	74	99	34.0	33.2	4.2	2.8	9.6
032830	삼성생명	81.0	605	819	(52.4)	15.0	0.7	3.6	(4.4)
005930	삼성전자	80.4	54,360	64,925	21.1	7.5	1.4	(2.1)	(9.4)
215360	우리산업	80.3	18	23	28.5	20.7	3.7	7.3	5.6
028260	삼성물산	79.8	850	934	9.9	35.3	1.1	12.7	(4.1)
008560	메리츠종금증권	79.5	424	476	12.4	10.1	1.1	15.9	19.0
001040	CJ	79.3	1,436	1,734	20.7	13.1	1.2	1.4	(1.3)
008770	호텔신라	79.0	78	158	116.4	38.6	4.4	9.5	18.8
051910	LG 화학	78.7	2,961	3,033	2.5	15.8	1.9	6.7	7.1
263750	풀어비스	78.7	-	177	197.8	13.9	6.9	1.5	70.3
091700	파트론	78.4	13	45	240.4	16.6	1.5	8.1	16.7
017670	SK 텔레콤	78.4	1,581	1,627	2.9	7.7	1.0	(0.6)	0.6
035720	카카오	78.2	181	263	44.9	57.6	2.6	2.2	(2.8)
037560	CJ 헬로	78.0	87	103	18.3	9.3	0.6	32.5	28.7
011170	롯데케미칼	77.6	2,885	2,959	2.6	6.1	1.0	14.1	13.7
090430	아모레퍼시픽	76.6	601	787	31.0	35.8	4.5	(1.6)	(4.6)

참고: 1월 31일 기준, 자료: Dataguide

※ Model Q는 종목별 시장 컨센서스 변화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모델입니다. Fnguide Universe 중 추정기관이 2개 이상인 종목을 대상으로 기업이익 모멘텀, 수급 변화, 주가 변화에 따른 기술적 분석,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 목표주가 대비 현 주가 수준 등을 계량화하였습니다. Model Q는 정량적 지표를 활용한 종목 Pool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점수에 따른 종목 선호도 제시와 추천종목의 의미가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China Center

china.center@samsung.com
02 2020 7032

○ 범중화 유니버스

종목명 (코드)	섹터	투자포인트	시가총액 (조원)
삼일중공업 (600031, 상해)	기계	- 중국 최대 기계 장비 제조 기업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 호조 실현 중 - 글로벌 1위 규모인 굴삭기 부문 수출이 해외 사업 매출 증가를 견인	11.8
화역자동차시스템 (600741, 상해)	자동차	- 중국 최대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으로 55% 매출이 상해자동차에서 발생 - 조명 등 부품 기업 M&A 및 친환경 자동차 부품 생산으로 신사업 확장	13.9
귀주모태주 (600519, 상해)	음식료	- 중국 1위 백주 생산기업. 소비층 및 유통망을 확장하여 판매량 증가 기대 - 프리미엄 백주의 입지를 강화하며 경쟁사 대비 높은 판매량을 꾸준히 유지	155.7
복요유리 (600660, 상해)	소재	- 중국 유리시장 점유율이 65%에 달하는 대표 기업으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 - 해외 매출 및 HUD, low-E 유리 등 고부가가치 상품 성장에 따른 수혜 전망	11.2
중국평안보험 (601318, 상해)	금융	- 중국 최대 민영 종합금융그룹으로, 생명보험 상품 판매에 특화 - 인보험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주로 업계 최고의 보험료 수익 달성 중	223.6
화동의약 (000963, 심천)	제약	- 저장성을 기반으로 한 국영 제약기업으로 중국 의약품 유통기업 매출 8위 - 발효동충하초제는 호흡기 질환 분야 M/S 1위, 당뇨병치료제는 M/S 2위	8.9
길리자동차 (00175, 홍콩)	자동차	- Volvo 인수로 기술이전 및 구매에서 차별화가 나타나는 로컬 자동차기업 - SUV 및 세단 판매 호조를 기록 중이며, 4분기 Lynk&Co 전기차 출시 기대	32.4
중국공상은행 (601398, 상해)	금융	- 중국 초대형 국유은행으로 예금 비중이 81%로 동종은행 대비 높음 - 리테일 금융에도 강점이 있어 자산 성장에 기반한 순이자마진 유지 용이	413.0
상해자동차 (600104, 상해)	자동차	- 중국 자동차시장 점유율 26%로 합자브랜드 폭스바겐 및 GM을 보유 - 자체 브랜드 SUV 판매 호조 및 전기차 신차 출시에 따른 재평가 기대	67.2
해강위시 (002415, 심천)	IT	- CCTV 및 통합 보안관리 솔루션 전문기업. 중국 보안시장 매출 1위 - 국내 매출의 30%가 정부에서 발생하며, 평안도시 프로젝트 수혜	61.0

(다음 페이지에 계속)

※ 당사는 고객의 투자위험관리를 위하여 해외주식 투자에 있어 최소 3~5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하여 리스크 관리를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종목명 (코드)	섹터	투자포인트	시가총액 (조원)
압신정밀 (002475, 심천)	IT	- 중국 최대 커넥터 제조기업. 모바일/통신인프라 커넥트 제조에 특화 - 애플향 매출이 33% 수준. 향후 로컬 스마트폰 성장으로 수요 확대	11.5
메이디그룹 (000333, 심천)	가전	- 글로벌 최대 가전 기업으로 백색가전 제품별 생산비중이 균형을 이룸 - M&A전략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로봇기업 KUKA 인수로 효율성 제고	64.3
내몽고이리실업 (600887, 상해)	음식료	- 중국 유제품 M/S1위 기업으로 프리미엄 유제품 시장 M/S 45% - 안정적인 실적과 M&A를 통한 사업 확장으로 성장	33.8
운남백약 (000538, 심천)	제약	- 중의약 브랜드 가치 1위 기업. 생활용품인 운남백약치약은 M/S 2위 - 국자위 산하 중의약 제조 기업이며, 혼합소유제 개혁에 따른 민영자본 유입	17.4
장강전력 (600900, 상해)	유틸리티	- 중국 최대 수력발전 기업으로 재무건전성이 뛰어난 고배당주 -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 확대 및 전력개혁 가속화에 따른 수혜	58.0
중국건축 (601668, 상해)	건설	- 중국 최대 건축 부동산 종합그룹으로, 국유기업 개혁 수혜 전망 -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른 인프라투자 확대 수혜주	50.9
하이드그룹 (002311, 심천)	농업	- 어류 사료 제조 기업으로 출발. 가금류, 돼지사료 제조 및 판매 사업 - 1,000여 종의 사료 배합기술을 보유. 원가경쟁력 확보	6.0
알리바바 (BABA, 뉴욕)	IT	- 타오바오와 알리페이 개발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을 주도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및 스마트 물류가 차세대 성장 동력	585.4
Tencent홀딩스 (00700, 홍콩)	IT	- 9억명 사용자에게 기반한, 중국 인터넷 플랫폼의 절대 강자 - 게임, 디지털컨텐츠, 지급결제 등 성장산업으로 집중되는 Biz 모델 구축	642.1
TSMC (2330, 타이완)	IT	- Bargaining Power를 보유한 글로벌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Fabless기업과 동반 성장	254.4



US Desk

joonghan1.kim@samsung.com
02 2020 7293

○ 미국 유니버스

종목명 (코드)	섹터	투자포인트	시가총액 (조원)
Apple (AAPL US)	IT/하드웨어	- 하반기 신제품 출시 및 신사업진출(AR,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감 유효 - 서비스 사업부문 성장과 추가적인 주주친화정책 기대	916.9
Alphabet (GOOGL US)	IT/인터넷	-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타겟팅 광고 → Digital 광고시장 장악 - 인공지능/Machine Learning 적용한 신사업 (ex. 자율주행차) 진출	880.3
Microsoft (MSFT US)	IT/소프트웨어	- 저성장사업 구조조정 마무리+신규사업 성장기반 확보가 동시 진행 중 - 클라우드서비스 Azure 90%이상/Office365 40% 이상 성장 중	777.5
Amazon (AMZN US)	IT/인터넷	-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및 클라우드 서비스 압도적인 전 세계 1위 - 스타 CEO가 주도하는 혁신 지속 (알렉사, 아마존 고)	733.1
Facebook (FB US)	IT/인터넷	-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바일 광고시장: 5년간 매출 연 50%성장(CAGR) - 왓츠앱, FB메신저, 인스타그램 등 추가적인 수익기반: 합산 MOU 25억명	582.4
JPMorgan Chase (JPM US)	은행	- 회사채 인수부분 1위/모기지대출 및 소비자금융 2위/카드론 1위 기업 - 공화당정부의 금융규제완화 대표적 수혜종목. 금리상승 시 실적호전 기대	432.7
Bank of America (BAC US)	은행	- 미국 금융주 중 금리상승에 대한 순이자이익 민감도 가장 높음 - 지속적인 비용감소로 수익호전 기대. 금융규제완화시 긍정적 모멘텀 기대	361.3
Comcast (CMCSA US)	미디어/엔터	- 미국 최대 케이블TV사업자. NBC유니버설, 드림웍스 보유: 콘텐츠 경쟁력↑ - 결합상품, 셋탑박스 개발을 통한 상품 경쟁력 향상: 코드커팅 방어 가능	210.5
Walt Disney (DIS US)	미디어/엔터	- 테마파크성장 및 2018년 영화 라인업 모멘텀 (Marvel 4개, Star Wars 2개) - 보유 IP를 활용한 다양한 수익창출모델이 강점	180.3
NVIDIA (NVDA US)	IT/하드웨어	- 글로벌 외장형 GPU 점유율 77%로 독보적인 1위 업체 - AI, VR, 자율주행, 빅데이터의 핵심인 GPU 시장의 고성장 기대	160.5

(다음 페이지에 계속)



종목명 (코드)	섹터	투자포인트	시가총액 (조원)
Nike (NKE US)	소비재	- 압도적인 브랜드파워를 보유한 세계 1위 스포츠용품 업체 - 세계 최대 중국 신발시장 점유율 확대로 장기성장동력 확보	118.0
Broadcom (AVGO US)	IT/하드웨어	- 다양한 분야에서 과점 지위 확보한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기업 - 휴대폰의 고사양화/Data Center로 인한 네트워크 반도체 수요확대 기대	108.0
ASML (ASML US)	IT/하드웨어	- 시장을 독점하는 첨단 리소그래피 광학 장비 업체로 반도체 장비 시총 1위 - 반도체 미세화 공정 경쟁에 따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수주 증가 예상	94.5
Costco Wholesale (COST US)	유통	-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유통기업 - 아마존의 홀푸드 인수로 인한 조정은 매수 타이밍	93.4
Salesforce.com (CRM US)	소프트웨어	- CRM(고객관계관리) 소프트웨어 시장점유율 세계 1위 -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최초로 개발한 혁신의 아이콘	87.8
Celgene (CELG US)	바이오	- 대형 바이오기업 중 유일하게 10% 후반의 외형 성장 예상 -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와 포말리스트 매출 급증 지속 전망	87.2
FedEX (FDX US)	운송	- 미국 택배 시장을 과점(MS 30%)하고 있는 세계적인 배송업체 - 옴니채널 확산으로 기존 오프라인 업체들의 택배 수요 증가 수혜	77.0
Mondelez International (MDLZ US)	음식료	- 오레오, 리츠 등의 브랜드로 유명한 글로벌 1위 제과 업체 - 비용 통제를 통한 수익성 개선, 신흥국 시장 침투 확대를 통한 성장 지속	71.4
Activision Blizzard (ATVI US)	게임	- 세계 최대 게임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게임 흥행 노하우를 보유 - 자사보유 IP를 활용한 종합 미디어 기업으로 도약 중	58.8
IQVIA (IQV US)	헬스케어	- 전세계 1위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수탁기관) 업체 - 복잡한 신약개발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CRO 시장 지속 성장 수혜 예상	23.6



해외주식팀

Jungyeon1980.kim@samsung.com
02 2020 6802

○ 일본 유니버스

종목명 (코드)	섹터	투자포인트	시가총액 (조원)
도요타자동차 (7203 JP)	자동차	-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제조 기업(시장 점유율 11%) -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 1위(36.1%), 교통 서비스 플랫폼 시장 선점	240.9
소프트뱅크 (9984 JP)	통신	- 스프린트의 실적개선과 비전펀드의 편입으로 수익구조 개선 - 비전 펀드(1,000억 달러)를 조성하여 4차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	97.6
소니 (6758 JP)	전자	- 일본 최대의 가전 기업으로 가전, 반도체, 게임, 음악 등 다양한 사업 보유 - 이미지 반도체와 게임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역대 매출 경신 기대	65.1
닌텐도 (7974 JP)	게임	- 휴대용과 가정용을 동시에 충족시킨 닌텐도 스위치의 성공 - 게임 캐릭터의 지적 재산권을 활용하여 모바일 게임 시장 진입	67.1
덴소 (6902 JP)	자동차 장비	- 세계 2위 규모의 자동차 부품 회사 - 주력상품으로 엔진, 변속기, ADAS 관련 장비를 생산	53.5
니혼덴산 (6594 JP)	전기기기	- 차량용/산업용/가전용 BLDC 모터 시장에서 수요 증가 수혜 기대 - 과점화 된 HDD 및 BLDC 모터 시장 선도	51.4
히타치 (6501 JP)	산업재	- 일본 최대의 산업 인프라 및 고성능 재료 생산 회사 - 세계 제조업 성장에 따른 산업 및 IT 인프라 시스템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	41.3
가오 (4452 JP)	생활용품	- 일본 최대 생활용품 생산/판매 기업(매출비중 일본 70%, 해외 30%) - 중국향 위생용품 매출 증가 및 브랜드 비즈니스 재편에 따른 성장	37.0
SMC (6273 JP)	IT 장비	- 세계 1위(34%) 공압식 공장 자동화 밸브/실린더 생산 기업 - 중국 공장자동화 산업 성장 기대: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낮은 공장자동화 비율	35.6
미쓰이부동산 (8801 JP)	부동산	- 주택, 사무실의 임대, 분양, 건설,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부동산 기업 - 도쿄와 뉴욕의 대형 프로젝트 완공에 따른 영업이익 성장 기대	28.0



종목명 (코드)	섹터	투자포인트	시가총액 (조원)
아사히맥주 (2502 JP)	식료품	- 일본 최대의 맥주 제조 기업으로 맥주 및 비주류 음료를 주력사업으로 함 - 사브밀러(SAB)의 유럽 사업부 지분 인수로 향후 이익성장 기대	26.6
미쓰비시케미칼홀딩스 (4188 JP)	화학	- 고분자 화합물의 기초 소재가 되는 MMA monomer 시장 1위(M/S 30%) -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음극재와 전해질 시장을 선도	17.8
TDK (6762 JP)	전자부품	- 수동전자부품과 자기녹음테이프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전자부품 기업 - 과거 인수한 ATL의 리튬 배터리 사업을 통한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 기대	13.0
돈키호테 (7532 JP)	유통	- 저가 판매를 핵심 경쟁력으로 하는 일본의 유통 회사 - 현장구매, 심야영업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속적인 매출/영업이익 증대	9.6
오쓰카 상회 (4768 JP)	IT서비스	- IT 인프라 판매 및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고객사 다양화 강점(매출비중: 대기업46%, 중견기업30%, 소기업 24%)	8.7





해외주식팀

jjng.jung@samsung.com
02 2020 7360

○ 베트남 유니버스

종목명 (코드)	섹터	투자포인트	시가총액 (조원)
비나밀크 (VNM, 베트남)	음식료	- 베트남 1위 유제품 제조 및 판매회사 - 주요 제품은 우유, 치즈, 요거트 등, 시장점유율 49%	14.0
비엠통은행 (VCB, 베트남)	은행	- 베트남 최초 설립 은행이자 3대 국영은행(비엠통, 비에틴, BIDV) - 인터넷뱅킹 M/S 50%, 무역금융 M/S 16%	11.4
PV가스 (GAS, 베트남)	유틸리티	- 베트남석유공사(PVN) 자회사로 가스 발전·유통 사업에 독점적 지위 보유 - 신규 가스화력 발전소 가동 및 정부 지분 매각 이벤트는 중장기 모멘텀	10.5
페트롤리믹스 (PLX, 베트남)	에너지유통	- 국영 석유공사 산하 베트남 최대 석유 유통 기업 - 석유화학, 아스팔트, LPG가스, 석유운반사업을 비롯 보험 및 금융 서비스	4.9
마산그룹 (MSN, 베트남)	음식료	- 식료품(매출비중 30%)·동물사료(53%)·광산(14%)·은행 자회사를 둔 지주사 - 사업포트폴리오 다양화 강점 보유, 사업회사 실적 개선 기대감 점증	4.5
호아팻그룹 (HPG, 베트남)	철강	- 베트남 최대 철강 생산업자(자체 고로 보유) - 건설용 철강 M/S 25%, 강관 M/S 27%	4.4
비엠텐항공 (VIC, 베트남)	항공	- 베트남 최대 저가항공사(LCC) 업체로 국내 여객수송 M/S 41% 차지 - 내수시장 확대 및 동북아 인바운드 수요 급증에 따른 수혜 기대	4.2
바오비엠텐홀딩스 (BVH, 베트남)	금융	- 베트남 1위 보험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복합 비즈니스 체계 구축 강점 - 글로벌 금리 상승 기조에 따른 금융 투자 수익 상승 전망	2.8
사이공증권 (SSI, 베트남)	증권	- 베트남 대표 종합 증권사로 브로커리지 1위 업체 - 매출비중은 중개(43%)·투자(32%)·IB(19%)	0.9
호치민시티인프라투자 (CI, 베트남)	인프라	- 베트남 최대 민영 인프라 기업 - 도로, 교량건설 및 통행료가 주 수입원	0.5
킨박시티개발주 (KBC, 베트남)	부동산	- 베트남 산업단지 임대 1위 - 산업단지, 사업부지, 물류창고 임대/판매가 주 수입원	0.3
안파플러스틱녹색환경 (AAA, 베트남)	제조	- 아시아 5대 플라스틱 포장업체 (비닐봉투, 포장필름 등) - 고품질 유지로 매출 100%가 선진국 수출에서 발생	0.1



해외주식팀

e.trading@samsung.com
02 2020 7306

● 글로벌 ETF 유니버스

종목명 (코드)	섹터	투자포인트	시가총액 (조원)
Reality Shares NASDAQ NextGen Economy (BLCN)	블록체인	- 기업들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대규모 비용 절감 및 보안 강화 기대 - 인텔, 히타치, SBI홀딩스 등 블록체인 기술 개발 또는 도입 전망 종목 보유	0.1
FirstTrust Cloud Computing (SKYY)	클라우드 컴퓨팅	- 소유 → 대여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폭발적인 수요 창출 기대 -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특허 등 높은 진입 장벽 구축	1.5
Global X Lithium & Battery (LIT)	리튬 광산 & 배터리	- 전기차 배터리 이용 비용이 화석연료 이용 비용에 근접 기대 - 과거 3G 이용 단가 하락 → 스마트폰 수요 증가 패턴 나올 가능성 증가	1.2
SPDR S&P Regional Banking (KRE)	미국 지방은행	- 금융 규제 완화 구체적으로 2018년에 가시화 기대 - 연준 기준 금리 인상 초기 사이클 진입으로 인한 매출 증가 기대	4.9
iShares MSCI Germany (EWG)	독일	- 독일 실업률 27년 최저치 경신. 임금 및 CPI 상승 기대 - 연준 대비 ECB의 상대적 금융 완화 정책 지속 전망	5.1
Nomura Nikkei 225 (1321, 일본)	일본	- 일본 완전 고용 시장 근접으로 인한 임금 및 CPI 상승 기대 - 연준 대비 BOJ의 상대적 금융 완화 정책 지속 전망	55.7
Guggenheim Shipping (SEA)	해운	- 한계 기업 퇴출로 인해 시장 경쟁 완화 및 생존 기업들의 반사 이익 발생 - 과거 고가에 빌린 또는 구매한 선박 관련 비용 점진적 감소 예상	0.1
iShares Asia 50 (AIA)	아시아 대형주	- 타 자산·타 지역 대비 상대적 低밸류 매력 부각 - 지수 편입 비중 높은 IT 섹터의 실적 모멘텀 가시화	0.9
Robo Global Robotics & Automation (ROBO)	로봇 & 자동화	- AI 시장 성장과 함께 로봇 및 자동화 시장도 성장 기대 - 하이원 테크(대만), 코그넥스(미국), , 쿠카(독일) 등 보유	2.6
SPDR Gold Trust (GLD)	금	- 낮은 실질 금리 장기화 기대 - 금 선물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ETF들과 차별화	39.2

참고: 상기 ETF는 미국 및 일본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 중.



투자정보팀

Jm56.kim@samsung.com
02 2020 7030

기업실적 발표일정

주요 기업 실적발표 일정

회사명 (십억원)	잠정실적 발표예정일	Fnguide Consensus			영업(잠정) 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LG전자	1월 8일	15,504	473	261	16,964	367	183
삼성전자	1월 9일	67,396	15,895	11,885	65,978	15,147	12,255
현대차	1월 25일	25,403	1,360	1,314	24,501	775	1,288
GS리테일	1월 30일	2,160	40	46	2,073	31	11
삼성전기	1월 30일	1,844	110	78	1,717	107	60
서울반도체	1월 30일	270	25	16	283	20	0
현대글로비스	1월 30일	4,121	192	124	3,966	171	214
LG화학	1월 31일	6,407	637	438	6,432	615	338
SK이노베이션	1월 31일	11,126	873	608	13,120	845	366
아모레G	1월 31일	1,612	132	110	1,342	90	21
아모레퍼시픽	1월 31일	1,345	104	87	1,140	77	17
삼성바이오로직스	1월 31일	127	20	2	161	47	(12)
KT&G	2월 1일	1,124	326	292	-	-	-
LG유플러스	2월 1일	3,084	197	128	-	-	-
삼성물산	2월 1일	7,541	228	191	-	-	-
금호석유	2월 1일	1,202	48	35	-	-	-
풍산	2월 1일	837	69	42	-	-	-
하나금융지주	2월 2일	2,275	408	353	-	-	-
SK텔레콤	2월 5일	4,436	383	594	-	-	-
KT	2월 6일	5,839	276	146	-	-	-
OCI	2월 6일	773	43	27	-	-	-
CJ E&M	2월 7일	517	27	30	-	-	-
엔씨소프트	2월 7일	579	245	187	-	-	-
컴투스	2월 7일	142	50	40	-	-	-
파라다이스	2월 7일	206	4	-1	-	-	-
CJ CGV	2월 8일	447	25	14	-	-	-
게임빌	2월 8일	45	2	8	-	-	-

참고: 컨센서스는 K-IFRS 연결기준 4분기 실적으로 2017년 12월 28일 기준, 상기 실적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자료: Fnguide, 삼성증권.

투자정보팀

hyunjung1016.kim@samsung.com
02 2020 7540

수급 빅매치

전일 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

코스피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현대차	575	1	삼성전자	6,167
SK하이닉스	319	2	삼성SDI	564
삼성화재	138	3	카카오	253
엔씨소프트	119	4	NAVER	238
LG디스플레이	91	5	아모레퍼시픽	175
SK	88	6	현대중공업	171
삼성에스디에스	79	7	LG이노텍	148
POSCO	73	8	삼성중공업	108
호텔신라	64	9	KT&G	90
OCI	63	10	대림산업	87

코스닥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펄어비스	88	1	셀트리온	711
메디톡스	48	2	셀트리온헬스케어	457
SK머티리얼즈	33	3	서울반도체	253
피에스케이	33	4	신라젠	90
레고컴바이오	22	5	대한광통신	78
아모텍	20	6	CJ E&M	74
뉴트리바이오텍	20	7	포스코캠텍	59
웹젠	19	8	티슈진(Reg.S)	44
텍셀네트컴	19	9	파라다이스	34
이엠텍	17	10	컴투스	33

전일 기관 주요 매매 종목

코스피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삼성물산	438	1	삼성전자	1,131
카카오	340	2	삼성SDI	399
삼성전기	94	3	아모레퍼시픽	245
삼성증권	86	4	한국전력	136
기아차	85	5	SK하이닉스	130
GS건설	61	6	POSCO	111
넷마블게임즈	59	7	NAVER	106
삼성생명	57	8	LG디스플레이	101
미래에셋대우	57	9	KT	99
삼성바이오로직스	57	10	LG	98

코스닥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	89	1	바이로메드	159
CJ E&M	64	2	펄어비스	79
위메이드	49	3	서울반도체	67
스튜디오드래곤	44	4	티슈진(Reg.S)	62
에스티아이	44	5	코오롱생명과학	41
셀트리온	43	6	피에스케이	28
파라다이스	42	7	아모텍	26
옵트론텍	35	8	웹젠	26
제이콘텐트리	32	9	이엔에프테크놀로지	23
GS홈쇼핑	26	10	신라젠	23

참고: 상기 자료는 17시 기준 자료로서 시간외대량매매의 발생 및 장외지분 변동시 일부 자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Koscom

전일 외국인/기관 동시 순매수/순매도 주요종목

코스피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삼성물산	496	1	삼성전자	7,298
삼성생명	115	2	삼성SDI	963
삼성에스디에스	98	3	아모레퍼시픽	420

코스닥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메디톡스	54	1	서울반도체	321
위메이드	52	2	신라젠	113
옵트론텍	39	3	티슈진(Reg.S)	107

참고: 상기 자료는 17시 기준 자료로서 시간외대량매매의 발생 및 장외지분 변동시 일부 자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Koscom



최근 5일간 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

코스피 시장

순매수	금액 (억원)	수익률 (%)	순위	순매도	금액 (억원)	수익률 (%)
SK하이닉스	1,583	1.5	1	삼성전자	6,042	1.1
삼성바이오로직스	1,058	7.9	2	카카오	1,026	3.7
현대차	634	3.5	3	NAVER	847	3.6
POSCO	558	(1.7)	4	대림산업	764	(6.6)
SK이노베이션	470	2.5	5	LG이노텍	449	(1.2)
엔씨소프트	405	1.5	6	현대중공업	321	(1.4)
OCI	399	7.6	7	한국금융지주	261	0.3
삼성엔지니어링	397	10.4	8	대우건설	225	5.1
고려아연	365	(0.8)	9	현대모비스	215	(8.3)
SK	317	4.4	10	CJ제일제당	215	(1.0)

코스닥 시장

순매수	금액 (억원)	수익률 (%)	순위	순매도	금액 (억원)	수익률 (%)
필어비스	217	(0.8)	1	셀트리온	1,693	7.6
메디톡스	172	(0.1)	2	셀트리온헬스케어	1,064	14.1
아모텍	168	9.0	3	서울반도체	461	(4.7)
텍셀네트컴	121	13.6	4	CJ E&M	351	(1.8)
씨젠	109	(2.1)	5	파라다이스	208	(2.1)
SK머티리얼즈	84	4.1	6	CMG제약	182	(13.6)
더블유게임즈	82	2.5	7	SK코오롱PI	104	2.0
피에스케이	81	(6.3)	8	덕산네오룩스	103	(2.0)
로엔	65	(3.8)	9	신라젠	102	(4.2)
바이로메드	60	(4.8)	10	컴투스	101	(2.7)



최근 5일간 기관 주요 매매 종목

코스피 시장

순매수	금액 (억원)	수익률 (%)	순위	순매도	금액 (억원)	수익률 (%)
삼성물산	926	4.8	1	현대모비스	1,165	(8.3)
삼성전기	779	6.0	2	삼성SDI	870	(5.3)
NAVER	657	3.6	3	SK하이닉스	788	1.5
카카오	656	3.7	4	현대차	591	3.5
롯데케미칼	615	4.2	5	LG전자	561	0.0
S-Oil	563	4.2	6	POSCO	476	(1.7)
현대건설	492	5.0	7	LG	438	(4.5)
넷마블게임즈	487	3.9	8	SK텔레콤	435	(3.1)
현대중공업	468	(1.4)	9	삼성전자	410	1.1
삼성바이오로직스	382	7.9	10	한국전력	351	1.0

코스닥 시장

순매수	금액 (억원)	수익률 (%)	순위	순매도	금액 (억원)	수익률 (%)
셀트리온헬스케어	309	14.1	1	풀어비스	379	(0.8)
SK머티리얼즈	119	4.1	2	신라젠	123	(4.2)
서울반도체	94	(4.7)	3	로엔	107	(3.8)
동성화인텍	88	19.2	4	웹젠	102	(0.3)
선데이토즈	85	43.8	5	오스템임플란트	95	(8.0)
매일유업	81	1.0	6	테스	94	(2.8)
에스디생명공학	69	7.9	7	에스에프에이	83	(3.1)
우리산업	63	0.0	8	피에스케이	83	(6.3)
고영	62	6.4	9	SG	80	0.0
녹십자랩셀	60	33.8	10	코오롱생명과학	75	(11.3)

참고: 상기 자료는 17시 기준 자료로서 시간외대량매매의 발생 및 장외지분 변동 시 일부 자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Fnguide

기관/외국인 순매수 전환 종목

코스피 시장	외국인	CJ헬로, SK증권	코스닥 시장	외국인	제넥신, 테스
	기관	아이엔지생명, 더존비즈온		기관	텔콘, 위메이드

참고: 순매수 전환은 2일 연속 매도에서 2일 연속 매수 전환하고, 매수금액이 매도금액보다 큰 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자료: Fn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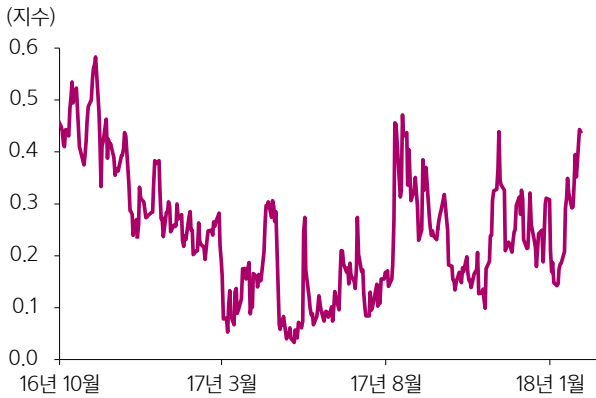
투자정보팀

hyunjung1016.kim@samsung.com
02 2020 7540

Market Indicators

Macro Indicator

시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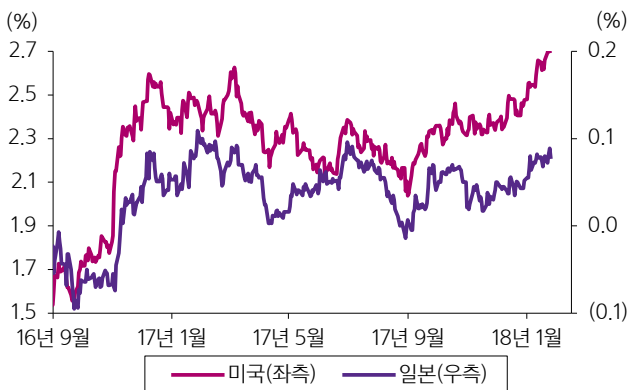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시티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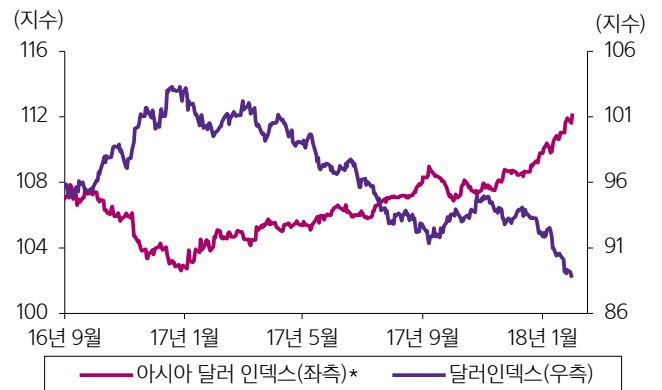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국/일본 국채 수익률 추이



참고: 10년물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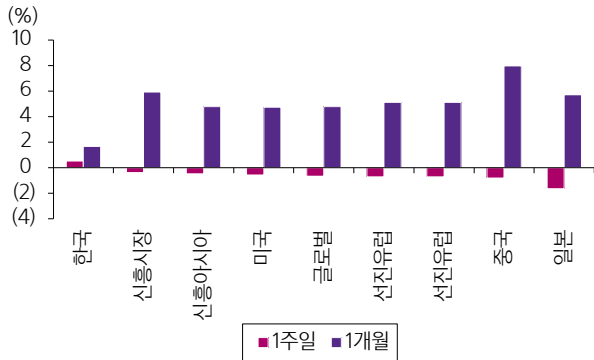
달러 인덱스와 아시아 달러 인덱스 추이



참고: * 미국 달러화에 대한 아시아 10개국 통화 가치
자료: Bloomberg

글로벌 증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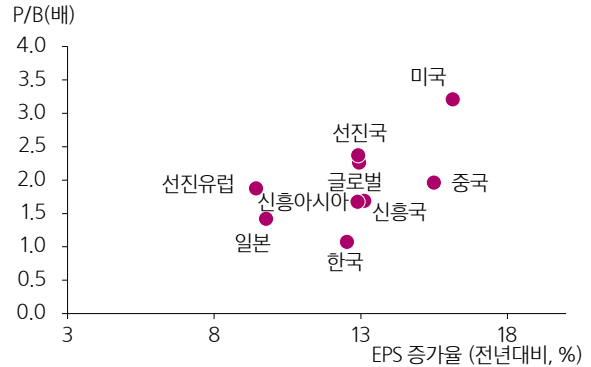
MSCI 지역별 증시 성과



참고: 01월 16일 ~ 01월 23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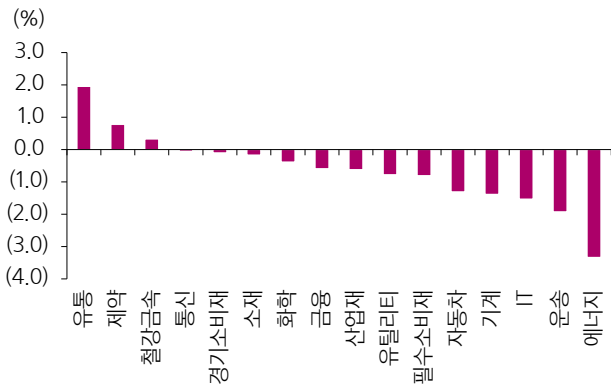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지역별 12개월 선행 기준 예상 EPS 증가율 및 P/B



자료: Thomson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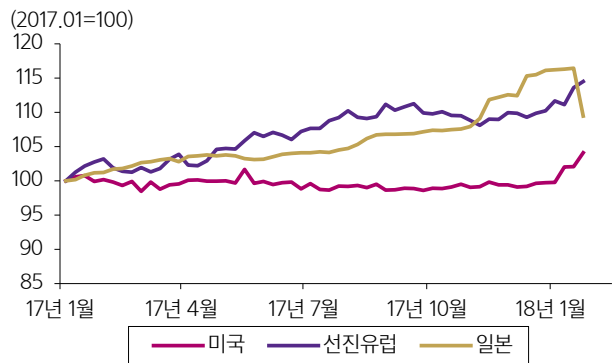
MSCI 선진시장 섹터별 주간 증시 성과



참고: 01월 16일 ~ 01월 23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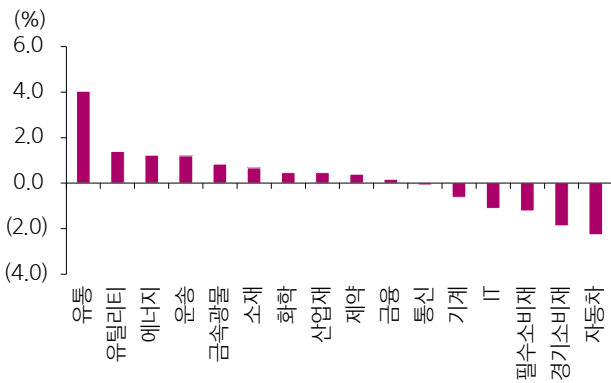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선진시장 주요 국가별 2017년 예상 EPS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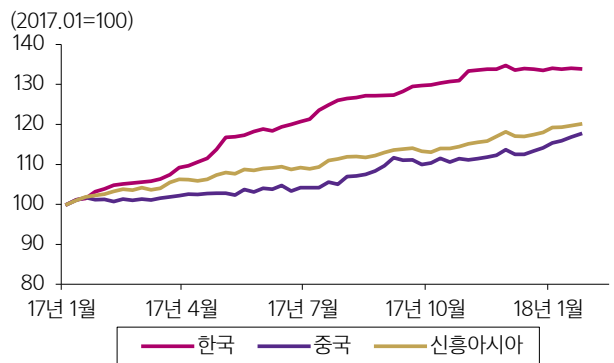
MSCI 신흥시장 섹터별 주간 증시 성과



참고: 01월 16일 ~ 01월 23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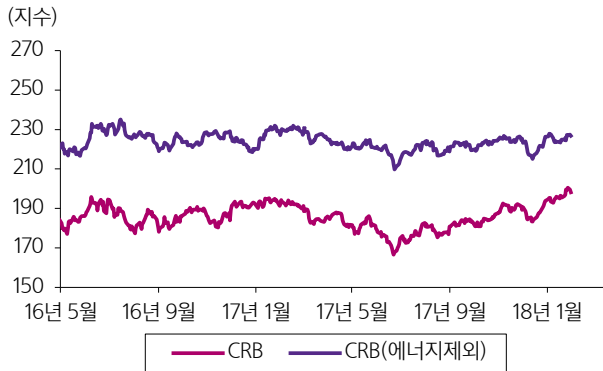
MSCI 신흥시장 주요 국가별 2017년 예상 EPS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상품 및 산업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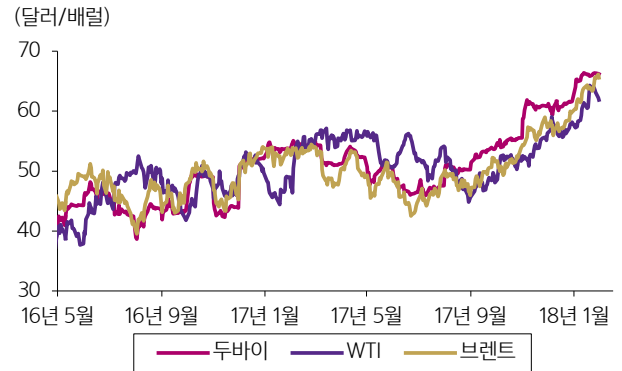
TR/Jefferies CRB Index



자료: Thomson Reuters

참고: CRB(농산물+에너지+비철금속)

국제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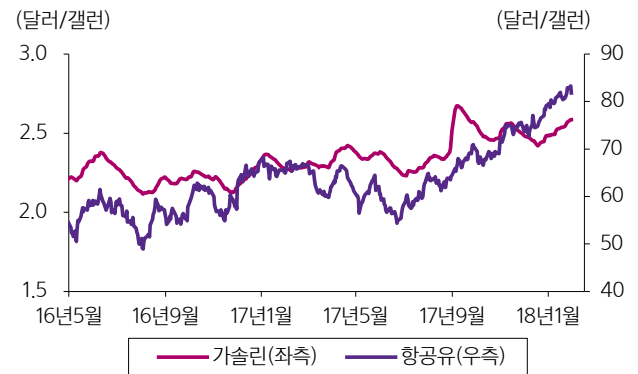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싱가포르 정제마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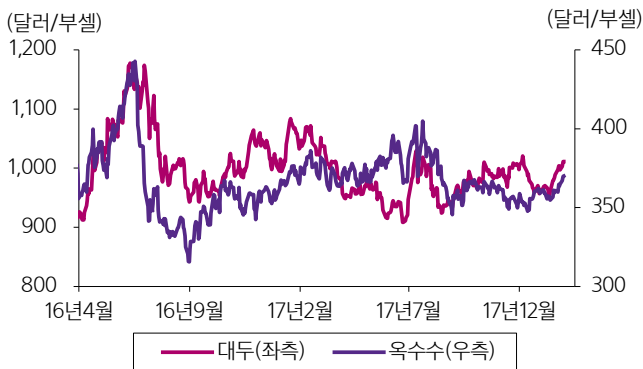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항공유 & 가솔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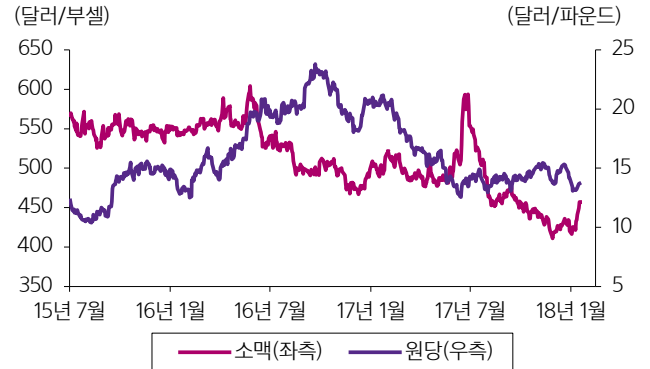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두 & 옥수수



자료: Bloomberg

소맥 & 원당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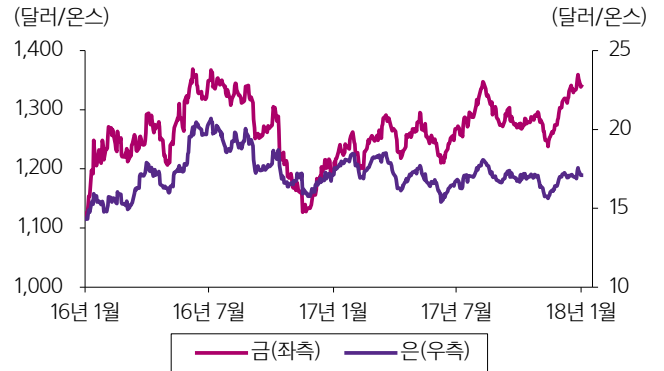


LME(비철금속)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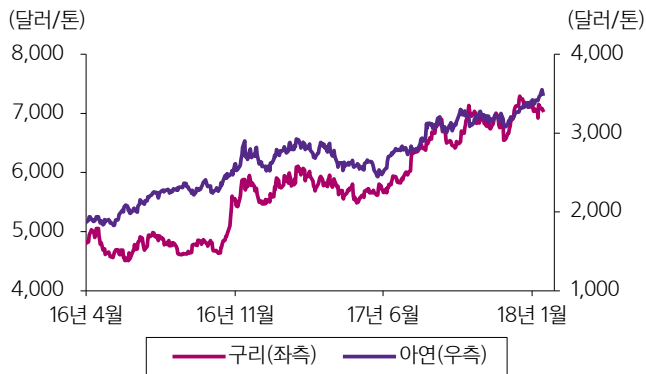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귀금속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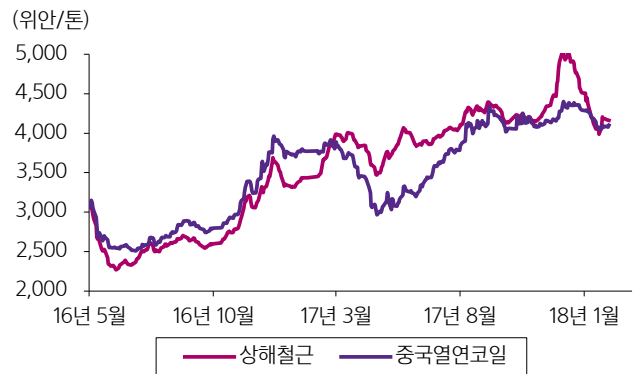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비철금속 가격



자료: Thomson Reuters

철강 유통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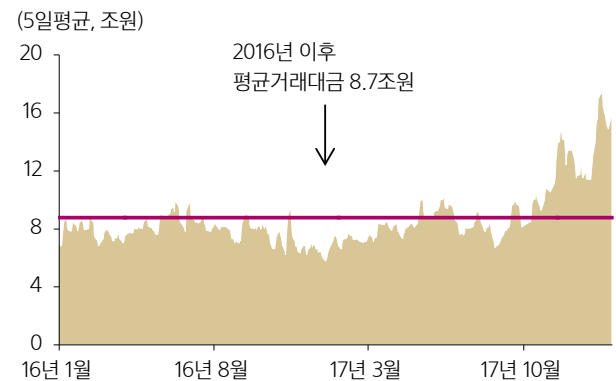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자료: Fnguide

KOSPI & KOSDAQ 거래대금



자료: KRX



증시캘린더

MON	TUE	WED	THU	FRI
29	30	31	2/1	2
	<p>[유럽] 4Q GDP SA(예상치/전기비) (4Q 0.6%/E 0.6%/P 0.6%) 1월 소비자기대지수 (1월 1.3/E 1.3/P 1.3)</p> <p>[미국] 컨퍼런스보드소비자기대지수 (1월 125.4/E 123.0/P 122.1)</p> <p>[일본] 12월 실업률 (12월 2.8%/E 2.7%/P 2.7%)</p>	<p>[미국] MBA주택용자신청지수 (1월4주 -/E -/P 4.5%) 1월 ADP취업자변동(천건) (1월 -/E 190/P 250) 1월 시카고구매자협회 (1월 -/E 64.0/P 67.6)</p> <p>[중국] 1월 제조업 PMI (1월 51.3/E 51.6/P 51.6)</p> <p>[일본] 12월 광공업생산(잠정치/전월비) (12월 2.7%/E 1.5%/P 0.5%)</p> <p>*FOMC(~2/1)</p>	<p>[유럽] 1월 마켓 제조업 PMI (1월 -/E 59.6/P 59.6)</p> <p>[미국] 주간실업수당청구건수(천건) (1월4주 -/E -/P 233) 1월 마켓 제조업 PMI (1월 -/E -/P 55.5) 12월 건설지출(전월비) (12월 -/E 0.4%/P 0.8%) 1월 ISM 제조업지수 (1월 -/E 59.0/P 59.7)</p> <p>[중국] 1월 차이신 제조업 PMI (1월 -/E 51.5/P 51.5)</p> <p>[일본] 1월 닛케이 PMI 제조업 (1월 -/E -/P 54.4)</p> <p>*한중경제장관회의</p>	<p>[미국] 1월 실업률 (1월 -/E 4.1%/P 4.1%) 12월 제조업수주 (12월 -/E 0.5%/P 1.3%)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1월 -/E 95.0/P 94.4) 12월 내구재주문 (12월 -/E -/P -)</p>
5	6	7	8	9
<p>美 12월 개인소득 12월 개인소비지수</p>	<p>美 12월 무역수지</p>	<p>美 MBA주택용자신청지수</p>	<p>美 주간실업수당청구건수</p>	<p>美 12월 도매재고</p> <p>中 1월 생산자물가지수 1월 소비자물가지수</p> <p>*평창올림픽(~2/25)</p>

참고: 韓: 한국, 美: 미국, 유: 유로존, 中: 중국, 日: 일본, 독: 독일, 영: 영국 / 현지시간 기준 / E: 예상치, P: 직전발표치
자료: Bloomberg

-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투자전략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